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박 찬 은

김 도 연[†]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부귀인, 외부귀인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570명으로 측정도구는 우정관계 질투척도, 또래갈등 척도, 귀인성향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정관계 질투는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중다회기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부귀인과 자기효능감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외부귀인이 높은 사람은 우정관계 질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의 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우정관계 질투가 낮아질 때 관계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초기 청소년기, 우정관계 질투, 관계적 공격성, 귀인성향, 자기효능감

* 이 연구는 박찬은(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도연,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 Tel : 070-8620-3312 , E-mail : dykimyscho@hanmail.net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후기 학령기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점차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초점을 기울이면서 또래관계의 비중이 늘어나고 대인관계 능력을 포함한 사회 적응능력을 발달시킨다. 선행 연구에서 이 시기의 또래관계가 이후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우정이란 또래들이 서로 만족할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Grusec & Lytton, 1988)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물질적 혹은 감정적으로 교류를 맺는다(윤진, 1984). 이처럼 또래관계 안에서 둘만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우정관계로 정의하였다(Perry & Bussey, 1984). 학령기 후기는 이전의 아동기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큰 시기로 이 시기의 우정관계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대단히 밀접하고 상호 반응하는 관계이다(Berndt, 1982). 이와 같은 강한 상호관계는 애정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어떠한 혜택을 친구와 함께 나누려는 시도 등의 특징을 갖는다(Mannarino, 1980).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기의 우정관계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기여하기에(Erdley, Nangle, Newman, & Carpenter, 2001)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교류 속에 성장하면서 우정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관계 내에서 다양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갈등은 관계가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게 될 때 분노와 불안, 거부 및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의 혼합된 정서를 빈번히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Vollong, McElwain & Miller, 2002). 우정의 질은 또래가 서로를 수용하고 조화로운 정도를 말하는데(Waldrip, Malcolm, & Jensen-Campbell,

2008), 우정관계의 낮은 질은 외로움과 우울증(Nangle, Erdley, Newman, Mason, & Carpenter, 2003), 낮은 자기존중감, 사회적응과 내면화 문제를 예측하게 하고(Rubin et al., 2004) 우정관계에서의 갈등(conflict), 배신 등의 스트레스 사건은 고통과 상처,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기도 한다(Berndt, 2002; Parker & Asher, 1993).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질투라고 할 수 있다.

질투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자신에게 소중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훼방꾼으로 여겨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인지, 정서, 행동 반응을 말한다(Parker, Walker, Low & Gamm, 2005). 우정관계에서 질투는 일반적으로 2인의 우정관계에 새로운 제3자의 개입으로 3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2인 우정관계는 제3자로 인하여 위협받거나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때 생겨나고 분노와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의식 등이 결합된 상태나 반응으로 정의한다(Volling et al., 2002; 배재현, 2006). 질투는 단일한 정서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측면과 연관된 관계의 산물이자,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반응을 의미한다(Parker & Barrett, 1997).

아동의 우정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자기보고 방법을 통해 시행된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Berndt, 2002), Marike와 Tessa(2015)는 또래 아동들의 상호작용을 관찰 연구하여 행동에서 나타난 우정관계 질투를 실험연구 한 바 있다. 연구결과 우정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에게, 우정관계에서의 질투감은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정관계에 만족감을 갖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

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질투감을 갖는 아동이 보이는 부정적인 행동은 또래로부터 강한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호 작용 패턴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투는 파괴적인 소통으로 이어지는 감시, 갈등과 같은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정관계에 대한 관심이 우정관계가 위협받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우정관계에서의 질투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질투와 관련된 행동은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vallee & Parker, 2009).

우정관계에서 수용 받지 못하고 거부된 아동과 청소년은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 쉬운데(Bagwell et al., 1998; Coie & Lenox, 1994; Moffit, 1993), 공격성에 대한 표현방식으로 Crick와 Grotmeter(1995)는 타인이 공격적인 것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쉽게 외부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소문내기나 따돌림, 배척 등과 같은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우정관계에서 관계종결을 가져올 수 있는 질투심은(Casper & Card, 2010) 우정관계 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난의 위협이 적은 공격 전략들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우정관계에서 질투의 부정적 영향은 관계적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난다(Guerrero et al., 1995).

관계적 공격성은 우정관계에서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일 때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변화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데 그 양상은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삼자를 조정하고 방관하여 특정인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Crick & Grotmeter, 1995). Culotta와 Goldstein(2008)은 초기 청소년들의 우정관계에서 질투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동기가 되어 관계적 공격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실례로 관계적 공격성은 학교 현장에서 왕따나 집단 따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14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2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타의 폭력행동에 비해 집단 따돌림과(18.7%로 4.2% 증가), 사이버폭력(6.0%로 1.9%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질투가 유발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 반응은 달라진다(White, 1999; Graham, Hudley, & Williams, 1992). 귀인이란 사건 혹은 행동의 결과를 두고 그것에 작용한 원인을 탐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귀인이론에서는 개인에게 실제로 작용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결정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인간에게 지각된 행동 결과의 원인을 인간 내부에 두느냐 혹은 외부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Heider, 1958). Rotter(1966)는 Heider가 말한 인과적 귀인의 내외요인을 통제소재라 부르고 내부와 외부의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통제체의 특성은 자신의 행동 후에 수반되는 보상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 결과로 지각하는 경우와 우연이나 운명이 주로 작용했다고 지각하는 경우로 나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보상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다르고, 지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귀인성

향이라고 하였다. 귀인성향은 통제의 소재에 따라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으로 구분한다. 내부귀인성향의 사람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부귀인성향의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자기의 행동과는 무관하며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다.

Weiner(1979)는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귀속된 원인을 세 가지 인과적 차원인 소재성, 안정성, 통제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귀인이론을 정립하였다. 소재성 차원은 원인의 소재를 내, 외부차원으로 나눈 것이며, 안정성 차원은 원인을 안정적인 것(능력, 과제난이도)과 가변적인 것(노력, 운)으로 나눈 것이다. 통제성 차원은 원인의 요소를 개인이 통제 조절할 수 있는가(노력은 통제가능)로 파악하는 차원이다. Leveson(1981)은 귀인성향을 내외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귀인성향과 외부귀인성향을 서로 독립적 차원으로 분리하여 다차원 개념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Levenson의 이론에 따라 내부, 외부귀인성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구조로 보고 내부귀인성향(능력, 노력)과 외부귀인성향(타인의 도움, 운)을 적용하였다.

Weiner(1986)는 귀인이론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정서가 유발되고, 유발된 정서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외부에 있다는 귀인이 분노를 야기하고 분노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질투가 유발되고 표현되는 과정에서 외부상황 그 자체가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 태도는 달라진다(Novaco, 1994). 이렇듯 어떤 상황에 대한 귀인의 해석은 중요해서 개인이 행동의 원인을 자

신의 내부에 두느냐 아니면 외부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 대인지각이 달라지고 이는 대인관계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내, 외부변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귀인성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 개인이 외부귀인을 할 때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지하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자신감 부족과 공격성을 나타내고(Perlow & Latham, 1993; Stevens, 2002), 내부귀인을 할 때는 문제해결 전략을 만들어 스트레스 상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imes, Millea & Woodruff, 2004; Marks, 1998). 청소년의 귀인성향 연구에서 내부귀인을 하는 청소년의 언어적, 간접적 공격성은 외부귀인을 하는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되었다(Lettie B, Chris M, & Marie P, 2010). 김미경(2006)은 초기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서 귀인성향에 따라 타인에 대한 대인지각이 달라지고 대인관계 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수미(2010)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아동들이 외부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귀인성향이 상황에 대한 사람의 인식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통해 개인이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효능감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사고하고 스스로를 동기화시키며 행동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수행의 정도를 결정한다. Bandura(1997)는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Bandura(1986)는 삼원상호작용론을 주장하면서 개인, 행동,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개인이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며 해석하는 측면과, 자신의 지각에 기초하여 수행을 평가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다음의 네 가지 과정이 상호작용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행동의 기능을 조절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ndura, 1993). 첫째,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관계에 대해 재해석을 하는 인지적 과정,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끈기를 보이는 정도와 실패 후에 얼마나 대처를 잘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과정, 셋째, 어떤 상황에 따른 정서적 반응으로 사고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과정, 마지막으로 환경의 선택과 구성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택적 과정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며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노력에 의해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려고 한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이 행동의 주된 근원이고 인간의 삶이 개인의 효능감에서 나온 신념에 의해 유도된다고 보았다. 최연희(2001)는 자기효능감이 내재적 동기가 되어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통제 불능의 사태에 직면해도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최은희(2007)는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개인의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려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내재적 동기원으로 작용하고, 인간의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주며 개인이 어떤 행동의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

문에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사고와 심상을 포함하며 행동의 주된 근원이자 동시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Perry 등(1986)은 초등학교 6학년의 자기효능감과 공격성간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형성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과 전종철(2015)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본인을 스스로 조절하여 공격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귀인 성향은 정서와 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동이 변화됨을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 보이는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귀인성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선택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 혹은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두 요인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우정관계 질투라는 점을 들어 초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우정관계에서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

성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6학년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6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를 처음 당한 시기가 6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학교폭력예방재단, 2014). 회수된 설문지 621부 가운데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이 이루어진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7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의 비율은 여학생이 295명으로 51.7%, 남학생은 276명으로 48.3%였다.

측정도구

우정관계 질투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를 배재현(2006)이 수정, 번안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질투를 느낄만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형식은 Likert식 5점 척

도로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질투를 느낀다(5점)’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도서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와 우리 반의 다른 친구는 방과 후에 함께 할 재미있는 계획을 세우면서 웃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Cronbach α*계수는 .94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is와 Frick(2004)가 제작한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를 한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격성의 형태적 차원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때때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Cronbach α*계수는 .91로 나타났다.

귀인성향

Levenson(1981)의 귀인성향 검사를 유기섭(1990)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내부귀인성향 16문항(예: 내가 앞으로 세상을 잘 살아가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주로 나의 능력에 달려있다)과 외부귀인성향 16문항(예: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부모나 유력한 친척의 도움이 꼭 있어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α 계수는 내부귀인이 .90, 외부귀인이 .89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제작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재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하였고,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인의 관계에 외부귀인 및 내부귀인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조절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우정관계 질투, 관계적 공격성, 귀인성향,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외부귀인과 내부귀인,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r=.36$)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우정관계 질투와 내부귀인($r=.12$), 외부귀인($r=.20$)은 정적상관을 나타낸 반면 자기효능감은 부적상관($r=-.14$)을 나타냈다. 관계적 공격성과 내부귀인, 자기효능감은 부적상관을 외부귀인은 정적 상관($r=.40$)을 나타냈다.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부귀인과 내부귀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와 기술통계 ($N=570$)

	1	2	3	4	5
1. 우정관계질투					
2. 관계적 공격성	.36**				
3. 내부귀인	.12**	-.02			
4. 외부귀인	.20**	.40**	.12**		
5. 자기효능감	-.14**	-.20**	.38**	-.25**	
평균	2.30	1.47	3.74	2.59	3.29
표준편차	1.00	.41	.69	.69	.55

** $p < .01$.

인, 내부귀인, 자기효능감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두 독립변수의 측정치를 평균중심화한 값을 곱하여 생성하였다. 평균중심화는 중다회귀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홍세희, 2005).

조절효과 검증의 1단계로는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 내부귀인, 자기효능감 각각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로는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 내부귀인, 자기효능감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부귀인 및 내부귀인의 조절효과

외부귀인의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설명량은 24%로 나타났고,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A: $\beta=.30, p<0.1$, B: $\beta=.34, p<0.1$). 2단계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1%로 나타났고,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의 상호작용항($\beta=.11, p<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부귀인의 주효과($\beta=-.06, p<.05$)는 의미있게 나타났으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상호작용항($\beta=.04, p>.05$)은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부귀인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단계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	ΔF	ΔR^2
관계적 공격성	1단계	우정관계 질투(A)	.12	.12	.30	7.76**	89.51**	.24
		외부귀인(B)	.14	.12	.34	9.15**		
	2단계	A x B	.05	.01	.11	3.06**	9.37**	.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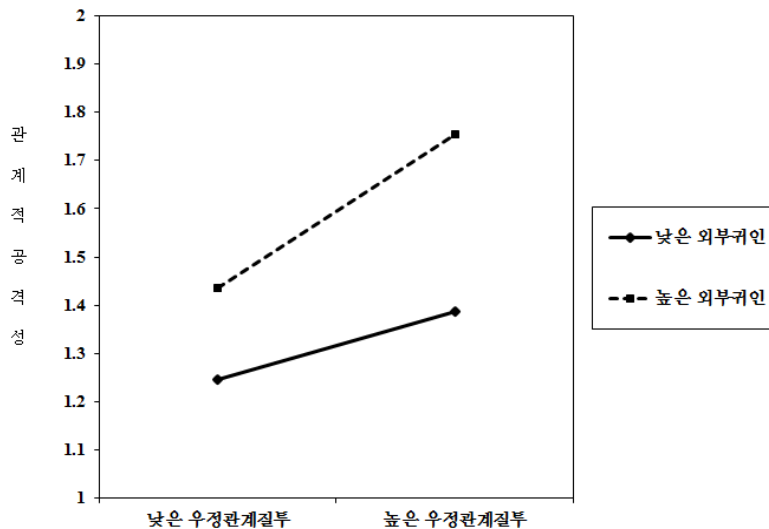


그림 1.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의 상호작용효과.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우정관계 질투와 외부귀인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두 독립변수의 평균치+1표준편차, 평균치-1표준편차를 회귀식에 투입하여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귀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자기효능감의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설명량은 15%로 나타났고, 두 독립

변수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A: $\beta = .34, p < 0.1$, B: $\beta = -.15, p < 0.1$). 2단계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1%로 나타났고, 우정관계 질투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beta = .08, p < .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우정관계 질투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양상을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효능감의 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종속 변수	단계	독립변수	B	표준 오차	β	t	ΔF	ΔR^2
관계적 공격성	1단계	우정관계질투(A)	.14	.02	.34	8.58**	50.04**	.15
		자기효능감(B)	-.06	.02	-.15	-3.82**		
	2단계	A x B	.03	.01	.08	1.97*	3.88*	.01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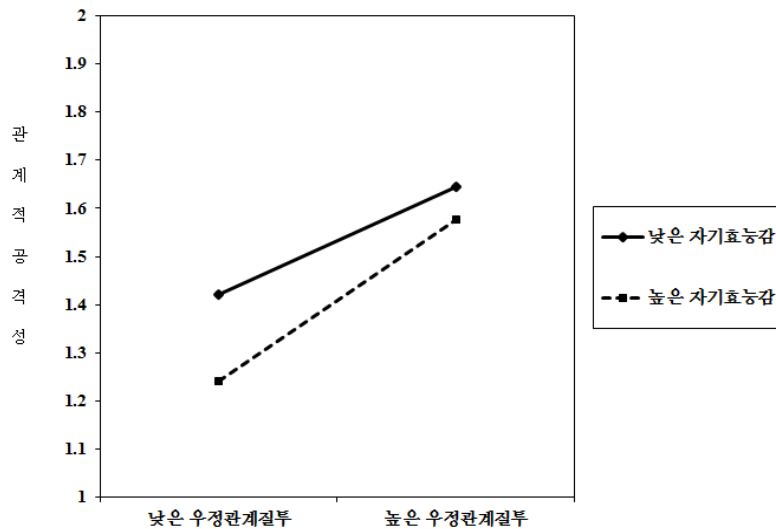


그림 2.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우정관계 질투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효과.

논 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인간 상관관계를 보면 우정관계 질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희경(2013), 강다겸(2013)의 연구와 심은신(2011), 배재현과 최보가(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정관계 질투는 내부귀인보다 외부귀인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적으로 통제적인 아동일수록 사교성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도적,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선미, 1994)를 고려해볼 때 질투심이 높은 아동일수록 외부 귀인성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관계적 공격성이 외부귀인과는 정적 상관을,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태호(2010)의 연구에서 내부 귀인성향 보다 외부귀인성향이 높은 아동들의 공격성이 높았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과 외부귀인이 내부귀인에 비해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는 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귀인성향이 조절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외부귀인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에서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타인에게 있다는 귀인이 분노를 야기하고 분노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경로를 제시한 Weiner(1986)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여기서 조절효과는 외부귀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우정관계 질투의 수준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귀인성향이 높은 사람은 질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련 연구에서 Crick과 Ladd(1993)는 또래관계에서 거부된 아동들이 관계실패의 원인을 외부귀인 한다고 하였고, 우정관계 질투가 원인 제공자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의도적인 것으로 잘못 추론하는 의도적 귀인과정을 거쳐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난다는(심은신, 2011) 연구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이는 우정관계 질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고, 질투가 유발되는 상황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외부귀인 하는 타인비난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배재현, 최보가, 2006)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내부귀인성향은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귀인성향이 학교생활적응(이윤정, 박미화, 2014)과 학교수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노은희, 2004) 연구와 내부귀인이 친구관계나 학업, 교사와의 관계 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경미(2013)의 연구 등은 내부귀인을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적응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정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우정관계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때는 내부귀인성향이 조절력을 보이지 않고 외부귀인을 통해서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성향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이 피해성향이 높은

아동들에 비해 외부귀인 가운데 운에 귀인하는 경향이 크다는 선행연구(김미경, 2006)를 고려해 볼 때 공격성의 표출에서 내부귀인성향의 조절력이 미미함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또래관계에서 둘 사이가 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한 다른 한 명이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못나서 그래”라고 자신에게 원인을 귀인 한다면, 이때 관계적 공격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Levenson(1981)은 귀인성향에 대한 이론에서 귀인성향을 내부와 외부의 단일차원의 구조로 규정하지 않고 다면적 개념구조 모형을 제시했다. 즉, 사람들이 행위 결과의 성격에 따라 내부귀인양상을 보이기도하고, 외부귀인양상을 보이기도하며, 또 어떤 때에는 내부, 외부귀인양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질투가 인지, 정서, 행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인적 경험으로 가정한다면(Pfeiffer & Wong, 1989) 감정의 발생 원인을 단순히 내부로만 귀인해서는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정미자(2007)의 연구와 초기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공격성, 타인을 괴롭힘 등) 및 내면화(불안, 외로움 등)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최태산과 김자경(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조절효과에서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정관계 질투의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이 감소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정관계 질투의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관계적 공격성의 감소율은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참여한 570명의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 전체 모집단의 표본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이외의 다른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서 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 외부귀인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문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로 인식되는 정서측정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척도가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정서에 맞는 또래갈등척도 설문지 개발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낮은 평균으로 나타난 관계적 공격성의 반응 경향성이 결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외부귀인과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R^2 으로 추정된 1%의 효과 크기는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정관계 질투라는 하나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조절변인으로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횡단 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를 두고 종단 연구를 고려한다면 이 모델의 조절효과는 보다 더 신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귀인성향 관련 선행 연구자들은 초기 청소년의 학업성패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또한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정서조절능력을 변인으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인성향의 조절효과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귀인이 효과적인 심리적 기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관계적 공격성을 표현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우정관계의 질투감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서 외부귀인과 자기효능감이 치료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이 연구가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치료적 개입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우정관계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에 관계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외부귀인은 낮추면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다겸 (2013).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경 (2006). 사회적 지지와 귀인성향이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미 (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소연, 전종설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Korean J. of Child Studies 36(4), 193-208.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51-64

김아영 (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노은희 (2004). 초등학생의 귀인성향과 자아개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재현 (2006). 청소년의 우정관계 질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배재현, 최보가 (2006). 남자청소년의 우정관계에서 발생하는 질투와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 및 공격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6). 87-102.

심은신 (2011). 여중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 사학위 청구논문.
- 유기섭 (1990). 성공 및 실패의 경험이 귀인성향, 자아개념 및 특성과제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6, 69-93.
- 윤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94 -113.
- 이경미 (2013). 고등학생의 귀인성향과 자기의식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미 (2010). 정서지능과 귀인양식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지위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 박미화 (2014). 초등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3(2), 121-140.
- 이태호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충동성 및 공격성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경 (2012).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과 애착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정미자 (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가정환경, 신체만족도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연희 (2001). 아동의 귀인유형과 학습된 무기력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은희 (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태산, 김자경 (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진 (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육과학사.*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ndura, A. (1986). Perceived self-efficacy: Exercise of control through self-belief. In J. P. Dauwalder, M. Perrez, & V. Hobi(Eds.), *Annal series of European research in behavior therapy*, 2, 27-59.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2001). 박영신, 김의철 역: 교육과학사.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1173-1182.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7-10.
- Casper, D. M., & Card, N. A. (2010). Two studies of antipathetic relationships emerging from broken friendshi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 499-526.
- Coie, J. D., & Lenox, K. F. (1994).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individuals. In D. Fowles, P. Sutker, & S. Goolman(Eds.), *Psychopathy and antisocial personality: A developmental perspective*(pp.45-72). New York: springer.
- Crick, N. R,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 -722.
- Crick, N. R,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c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44-254.
- Culotta, C. M., & Goldstein, S. E. (2008). Adolescents'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Associations with jealousy and social anxiet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Research and Theory on Human Development, 169*, 21 - 33.
- Erdley, C. A., Nangle, D. W., Newman, J. E., & Carpenter, E. M. (2001). Children's friendship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ory and research. In D. W. Nangle & C. A. Erdley(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The role of friendship in psychological adjustment, 91*, 5 - 24. SanFrancisco: Jossey Bass.
- Graham, S., Hudley, C. & Williams, E. (1992). Attributional and emotional determinants of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and Latino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31-740.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research.* 218-251. N.Y. US: Springer Verlag Publishing Social development.
- Grimes, P. W., Millea, M. J. & Woodruff, T. W. (2004). Student evaluation of teaching and locus of control.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35*, 129-148.
- Guerrero, L. K., & Andersen, P. A., Jorgensen, P. f., Spitzberg, B. H., & Eloy, S. V. (1995). Coping with the green-eyed monster: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mmunicative responses to romantic jealousy.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9*, 270-30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Lavallee, K. L., & Parker, J. G. (2009). The role of inflexible friendship beliefs, rumination, and low self worth in early adolescents' friendship jealousy and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 873 - 885.
- Lettie B., Chris M. & Marie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wn locus of control and aggression of adolescent boys. *South African Journal of Education 30*, 511-526.
- Levenson, H. (1981). Differentiating among

- internally powerful others and chance. *Research with the locus of control construct*, 1, 15-66.
- Mannarino, A. P. (1980).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45-63.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rike H. F. Deutz, Tessa A. M. Lansu, & Antonius H. N. Cillessen. (2015). Children's Observed Interactions With Best Friends: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Jealousy and Satisfaction. *Social Development*, 24(1), 39 - 56.
- Marks, L. (1998). Deconstructing locus of control: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6, 251-260.
- Marsee, M. A., Kimonis, E. R., & Frick, P. J. (2004). Peer conflict scale. Unpublished rating scale. University of New Orleans.
- Moffi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Nangle, D. W., Erdley, C. A., Newman, J. E., Mason, C. A., & Carpenter, E. M. (2003). Popularity, friendship quantity, and friendship quality: Interactive influences on children's lonel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546-555.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K. Monahan & H. J. Steadman(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ker, J. G., & Low, C. M. (1999). Defining and assessing children's jealousy over frien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arker, J. G., & Barrett, E. (1997). Morbid jealousy as a variant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 133-138.
- Parker, J. G., Low, C. M., Walker, A. R., & Gamm, B., K. (2005). Friendship Jealousy in Young Adolescents: Individual Differences and Links to Sex, Self-Esteem, Aggression,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235-250.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307-329.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Perlow, R., & Latham, L. (1993). Relationship of client abuse with locus of control and gender: A longitudinal study in mental retardation facilit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5), 831-834.
-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70-771.
- Pfeiffer, S. M., & Wong, P. T. P. (1989). Multidimensional jealous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6, 181-196.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Rubin, K. H., Dwyer, K. M., Booth 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 K.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 326 - 356.
- Stevens, T. G. (2002). *You can choose to be happy: Rise above anxiety, anger & depression*. Seal Beach: Wheeler-Sutton.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 and its relation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 581-600.
- Waldrip, A. M., Malcolm, K. T., & Jensen Campbell, L. A. (2008). 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s: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friendships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7, 832 - 852.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Y.: Springer-Verlag.
- White, G. L. (1999). Jealousy and problems of commitment. In J. M. Adams & W. H. Jones(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relationship stability*, 471-480. New York: Kluwer Academic Plenum.

원고접수일 : 2016. 10.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2. 13.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2. 07.

**The Effect of Friendship Jealousy
on Relational Aggression of Early Adolescent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ChanEun Park

DoYeon Kim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friendship jealousy on relational aggression of early adolescents and addres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had any moderating eff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570 students(6th grade, 276 boys & 294 girls) from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t was measured with 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Parker & Low, 1999), Locus of Control Scales (Levenson, 1981), Self-Efficacy Scales(Cha, J. E., Kim, A. Y., 1996). The Peer Conflict Scale(Marsee, Komonis, & Frick, 2004)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Statistical analyses of data used for this study comprised the following methods;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friendship jealousy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reased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the level of self-efficacy decreased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In addition,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fficacy moderated the effects of friendship jealousy on relational aggression whereas internal locus of control did not.

Key words : early adolescents, friendship jealousy, relational aggression, locus of control, self-efficacy